

협회 소식

운영홍보위원회 회의 개최



협회는 지난 5월 15일 서울 논현동 협회 회의실에서 봉희룡 위원장을 비롯한 운영홍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운영홍보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협회는 민간-공공 공동택지개발사업을 민간이 제안할 경우 해당 지역 토지를 50% 이상 확보해야 하며 공동사업을 할 경우 토지수용은 공공시행지만 할 수 있도록 해 전체 토지의 최소 30%는 공공택지로 활용하도록 한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과 앞으로 부

동산개발업자로 등록하려면 자본금 5억 원 이상있어야 하고 등록할 수 있고 건축사업은 건축물 연면적 600평(2000㎡) 이상 또는 연간 1500평(5000㎡)을, 토지개발사업은 토지면적 900평(3000㎡) 이상 또는 연간 3000평(10000㎡) 이상은 등록사업자가 아니면 할 수 없도록 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와 육성에 관한 법률을 보고했다.

또한 협회는 청약가점제 도입, 채권입찰제 상한액 하향 조정, 입주자 선정업무의 은행대행 의무화와 인터넷 청약대상 지역 전국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해 인터넷 청약대상 지역을 수도권 안에서 청약과열 방지가 필요한 경우로 정하고 서류 보관 기간도 85㎡ 이하는 10년, 85㎡ 초과는 5년으로 해줄 것을 건의했고,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따른 민간택지 적용 기본형건축비의 합리적 마련을 위해 판교 주공아파트 모델 대비 가상건축 입찰 결과와 일반아파트 대비 주상복합아파트 추가건축비 등 관련 자료를 건설기술연구원에 제출했고, 층고에 따른 기본형건축비 차등화와 홈네트워크, 초고속정보통신 특등급, 멀티 에어컨 냉매배관, 중앙집진 청소시스템은 가산항목으로 전환해줄 것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운영홍보위원들은 주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시 마이너스 옵션제 도입에 따른 감리비 산정 등 업계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회의를 마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해 한국토지공사 홍성덕 팀장의 설명이 있었다.

회원사 소식

두산건설, 부회장 정지택 씨 사장 김기동 씨



정지택 부회장

김기동 사장

두산그룹은 두산건설 정지택 사장을 부회장으로 승진시키고, 대우건설 김기동 부사장을 두산건설 대표이사 사장으로 영입하는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정 부회장은 행정고시 17회로 재정경제원과 기획예산처에서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으며, 지난해부터 두산건설 사장을 맡아왔다. 김 사장은 1976년 대우건설에 입사해 2004년부터 부사장으로 일해 왔다.

플래티넘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건설청(BCA/Building & Construction Authority)이 환경 친화적 건축물을 장려하기 위해 2005년부터 도입한 'BCA 그린마크'는 건축물의 에너지와 절수 효율, 건물 운영, 실내 거주환경, 혁신성 등을 종합 평가해 플래티넘, 골드플러스, 골드, 일반 등 4등급의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번에 최상위 등급 인증을 받은 11~15층 5개동 264가구 규모의 오션프론트 아파트는 에너지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옥상에 수영장과 정원을 도입하고 각 발코니에 화단을 조성했으며, 건물 전면에 알루미늄을 수평으로 배열한 루버(louver)와 광투과율은 높고 열전도율은 낮은 첨단 오피스용 특수유리(Low-E Glass)를 사용함으로써 건물 온도를 획기적으로 낮추는 등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쌍용건설, 싱가포르 건설대상 플래티넘 그린마크 인증



쌍용건설(회장 김석준)은 5월 10일 싱가포르 래플즈스티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된 '2007 싱가포르 건설대상(BCA Awards 2007)' 시상식에서 회사가 시공 중인 오션프론트 아파트(Oceanfront Condominium)가 주거용 건축물 최초로 BCA 그린마크 최상위 등급인

대림산업, 2007년 'e-편한세상' 토털 디자인 매뉴얼 발간



대림산업(대표이사 이용규)은 지난 4월 26일 '2007년형 토털 디자인 매뉴얼 개정판'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토털 디자인 매뉴얼은 단지 내 조경에서부터 지붕, 외벽, 주동 출입구, 주차장, 상가, 경비실, 자전거 보관대, 쓰레기 통, 집수정 덮개에 이르기까지 아파트 단지의 전체 디자인에 대한 총괄적인 기준을 제시해주는 지침서다. 따라서 토털 디자인 매뉴얼을 통

해서 'e-편한세상'으로 불리는 모든 아파트는 동일한 디자인과 품질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토털 디자인 매뉴얼 개정판(Total Design Manual 2nd Edition)은 기존 매뉴얼을 실제 현장에 적용한 결과를 바탕으로 디자인의 완성도와 실용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토털 디자인 매뉴얼은 디자인 경쟁이 공사비 상승을 의미한다는 기존관념을 바꾸고 있다. 기존에는 프로젝트 별로 각각의 아파트 디자인을 차별화해서 개발했지만 토털 디자인 매뉴얼에서는 'e-편한세상' 아파트만의 표준적인 디자인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디자인 개발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더군다나 토털 디자인 매뉴얼을 업그레이드한 개정판은 시공을 통해서 검증받은 내용이라는 점에서 시공상의 하자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림산업은 고객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디자인 컨셉트를 계속해서 개발해나가는 목표 아래 토털 디자인 매뉴얼을 2년마다 지속적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삼성물산 건설부문, 온라인 웹진 '래미안스' 오픈



삼성물산 건설부문(사장 이상대)은 온라인상에서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기 위해 멤버십 웹진 '래미안스'를 오픈했다고 밝혔다. '래미안스'는 '시청하는 웹진'이란 주제로 기존 웹진

의 텍스트 중심을 벗어나 동영상으로 내용을 차별화했다. 또, 래미안 입주자들의 생활과 모임을 취재해 입주자들의 소속감을 심어주고, 입주 예정자들에게는 아파트 생활을 미리 짐작해볼 수 있도록 서비스할 계획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래미안스 창간 이벤트로 자녀의 그림을 통한 전문가의 심리상담 서비스와 요리대회, 문화체험을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 정기적인 이벤트와 기사 소재 제공 등을 통해 이용자들의 참여 코너를 계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스코건설, 주부자문단 'the sharpist' 모집

포스코건설(대표이사 한수양)이 6월 1일부터 12일까지 주부자문단 'the sharpist'를 모집한다. 주부자문단의 명칭인 'the sharpist'는 포스코건설의 주택브랜드인 'the#'에 '~ist'를 결합시킨 합성어로 '더샵전문가'라는 의미를 지닌다. 지원자격은 결혼 5년차 이상의 주부로 서울·수도권과 부산 지역에서 10년 이상, 아파트에서 5년 이상의 거주경험이 있으면 된다. the sharpist로 선정되면 최근 입주한 이슈단지 답사, 모델하우스 조사분석, 신(新) 디자인에 대한 품평, 신규 아이디어 제안과 주제 토론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포스코건설은 the sharpist의 활동을 통해 다방면의 소비자 아이디어를 발굴해 적극 적용할 예정이며, 개발된 신상품에 대한 소비자 검증을 통해 고객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the#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건설, 해외근로자 부모님 찾아 카네이션 행사



현대건설(대표이사 이종수)이 어버이날을 맞아 모래바람 부는 사막이나 머니먼 타지의 해외건설 현장에서 자녀들을 보낸 부모님을 위로하기 위해 지난달 8일 국내 직원들이 해외현장 동료의 부모님 댁을 찾아가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행사를 펼쳤다. 이날 현대건설 직원들은 어버이

날을 맞아 부모님을 찾아볼 수 없는 해외현장 동료들의 부모님 댁을 집집마다 찾아가 가슴에 꽃을 달아드리고 인절미·시루떡·절편등을 선물했다. 한편, 현대건설은 어린이날이었던 지난 5일에도 해외현장 직원들의 초등학생 자녀 120명에게 이종수 사장이 직접 쓴 어린이날 축하카드와 케이크를 보낸 바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최근 해외현장이 늘어나면서 가족과 떨어져 해외에서 근무하는 이들, 아빠가 많아져서 같은 행사를 마련했다"면서, "사랑하는 아들, 아빠와 오랫동안 떨어져 지내야 하는 해외직원 가족들이 조금이나마 따뜻한 가족사랑을 느꼈으면 한다"고 밝혔다.

현대건설, '2007 뉴컨셉트 주거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현대건설(대표이사 이종수)이 주최하고 한국실내디자인학회가 주관하는 '2007 뉴컨셉트 주거 아이디어 공모전'이 개최된다. 글로벌 시대의 한국인이 원하는 미래의 주택에 관한 내용으로 'HILLSTATE'가 만드는 한 스타일 미래주택' 주제 아래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은 소비자 아이디어 공모전과, 학생 디자인 공모전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소비자 아이디어 공모전은 7월 20일(금)부터 7월 31일(화)까지 응모원서와 작품을 접수하며, 학생 디자인 공모전은 8월 20일(월)부터 9월 11일(화)까지 응모원서를 접수하고 10월 13일(토)부터 10월 15일(월)까지 작품을 접수한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대상, 1등, 2등, 3등상, 장려상, 입선이 주어지며, 대상부터 3등상까지는 최고 100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의 부상이 따른다. 뽑힌 작품들은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갤러리에서 10월 중에 전시될 예정이다. 공모전 관련 자세한 세부 내용은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홈페이지(www.kiid.or.kr)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현대산업개발, 'PARK 작은음악회' 개최



현대산업개발(대표이사 김정중)과 영창악기는 7일 서울 삼성동 소재 현대산업개발 본사 사옥인 'PARK 타워 1층 로비에서 'PARK 작은음악회'를 개최했다. 점심시간인 오후 12시 20분부터 40분 동안 열린 'PARK 작은음악회'에서는 피아니스트 출신으로 현재 영창악기 대표이사의 비서로 근무 중인 류지아(29)씨와 신디사이저 연주자인 임모세(25)씨 등이 '봄과 사랑'을 테마로 연주를 선보여 박수 갈채를 받았다. 이날 행사에는 현대산업개발, 한국수력원자력공사 등 'PARK 타워' 입주사 임직원들을 비롯해 인근 직장인 100여 명이 모여 봄날의 여유를 즐겼다. 한편, 이번 음악회는 현대산업개발과 영창악기의 계열사 간 화합 차원에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 실시된 것으로, 영창악기는 지난해 5월 현대산업개발에 인수돼 성공적으로 기업 정상화를 이룬 바 있다.



바로잡습니다

지난 204호 MARKET REPORT에 게재된 사진(p77)은 현대렉시온 오피스텔이 아닌 현대 성우(시공: 성우중합건설) 오피스텔로 정정합니다.